

## 일한·아시아교류 친구를 만들자 비빔모임에 참가하여



출근 이전부터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비빔모임. 대학생의 친구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과 만날 때면 언제나 “언니도 비빔모임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절대 재미있을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고, 중학교 때부터 불런티어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불런티어까지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일석이조라고 생각해, 이전부터 비빔모임에는 매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립중학교 교원인 저에게는, 빠질 수 없는 클럽활동이나 행사 등이 겹칠 때가 많아, 지금까지 참가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해서 겨우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비빔모임 회장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눈에 들어온건, 화이트보드에 붙여진 색지로 만든 장식들과, 테이프의 점착력이 떨어졌는지 지금이라도 보드에서 떨어질 것 같은 하트모양의 풍선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박한 장식. 하지만, 여기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스태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였을까? 아마도 얼마든지 자기 시간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들어, 처음 참가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빔모임이 시작하고서 부터는, 아이스브레이크나 환담 등이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후반에는 그룹을 바꿔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인터뷰시트도 직접 펜으로 써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따뜻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스커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그룹에 여러 테마가 주어져서, 같은 국민이라도 의견이 틀리거나,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의 정보를 일본인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그룹에서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틀린 의견이라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였습니다. 만약 이게 제가 평소에 진행하는 수업이고, 이번 참가자들이 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었다면, 전 아마 수업을 중단하고서라도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빔모임 참가자들의 태도가, 단순히 “듣는(聞く)” 것이 아니라, “청취(聴く)” 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청취(聴く)” 의 “청(聽)” 이라는 한자는, 귀(聞)로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눈(目)과 마음(心)을 더한 글자입니다. “소리” 를 듣고 있어도, 그 사물을 똑바로 직시 =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누군가의 말은 단지 “소리” 가 될 뿐이랍니다. 하지만, 비빔모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태프와 게스트 사이에는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있었고, 게스트들끼리도 마음의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상, 타인을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에 힘이 드는지 잘 알고 있고, “아, 여기는 정말 잘 생각했구나” 라고 느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것을, 대부분의 참가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마음 속으로부터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한 것이, 비빔모임의 제일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예전, 한국인으로부터 “지금 한국의 나쁜 문화는, 전부 일본으로부터 왔다” 라는 말을 듣거나, 한국여행중에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한국어로 “일본인이~~” 라고 회사원차림의 한국인에게 무척 불쾌한 얼굴로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국, 한국인을 어딘지 모르게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생긴 지금은, 개인이 좋아지면, 전체의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비빔모임은,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프 여러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